みんぱくリ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

朝鮮半島の新展示について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秀村, 研二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39

朝鮮半島の新展示について

秀村研二（明星大学）

日本にとって隣接する社会である朝鮮半島は、他の地域と異なって、一般の人々にとっても親しみがあり、また多くの人々が韓国に訪れて直接に体験してきている社会でもある。日本社会は歴史的にも、また文化的にも多くの影響を受けてき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のような身近によく知られた社会を博物館でどのように展示したらよいのかは非常に難しいと思われる。新展示においても、基本的には伝統文化の理解ということ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そのため、現代の文化や都市文化に関する展示スペースが限られてしまった。しかし、従来は注意が払われなかった現代のスポーツ文化とキリスト教や仏教の新しい姿についての展示がなされただけでも、従来の日本の朝鮮理解を大きく超えるものなのかもしれない。韓国のキリスト教を研究対象としてしている立場からキリスト教の展示を中心として少し意見を述べてみる。

日本の社会から見ると、同じ東アジアにある韓国社会がキリスト教徒の多い社会であるというのは意外な感じがするものらしい。街の様子や人々の姿形はよく似ているのに、韓国の都市に林立する十字架は日本からの旅行者を驚かせる。キリスト教徒数はプロテスタント900万人、カトリック300万人といわれている。日本のキリスト教信者数が100万人にも満たないこととは対照的である。

日本でも韓国でもキリスト教は外来の宗教文化であった。特に近代になってからの布教が欧米の宣教団体によってなされたこともあり、キリスト教は欧米の宗教と認識されていることが韓国でも日本でも多いようである。そのためキリスト教がどれだけ土着化して、本来のプロトタイプである欧米のキリスト教から変容しているのかが議論されることが多い。しかし、欧米のキリスト教もそれぞれが一つの土着化した独自のキリスト教であり、あるべきキリスト教などは存在しない。韓国のキリスト教もキリスト教の一つの独自性をもった一つのタイプなのである。その韓国のキリスト教の特徴をどのように展示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ろうか。

博物館で展示されるものは、現在までのところ物質文化がその中心である。キリスト教に関する物質文化としては、教会建築、聖書や賛美歌、儀礼で使用される祭具類、聖職者や信者の衣類や身につけるもの、信仰生活において使用される用品、教会や教

한반도의 새전시에 대하여

秀村硏二(明星大學)

일본에 있어서, 인접하는 사회인 한반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친근감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체험해 온 사회이기도 하다. 일본사회가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잘 알려진 사회를 박물관에서 어떻게 전시하면 좋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새전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이해라는 것에 중점을 두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화나 도시문화에 관한 전시공간이 한정되어버렸다. 그러나 종래에는 주목되지 않았던 현대의 스포츠문화, 기독교나 불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전시가 행해진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일본의 조선이해를 크게 초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기독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있는 입장에서, 기독교 전시를 중심으로 몇가지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일본 사회에서 보면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사회가, 기독교 신자가 많은 사회라는 것은 의외일지도 모르겠다. 거리모습이나 사람들의 하고 있는 모양은 매우 비슷한데, 한국 도시에 늘어선 십자가는 일본에서 온 여행자들을 놀라게한다. 기독교 신자수는 프로테스탄트 900만명, 카톨릭 30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일본의 기독교 신자수가 100만명에 채 달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독교라는 것은 외래의 종교문화였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선교단체들에 의해 포교된 경위도 있어, 기독교는 서구 종교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것같다. 그 때문에 기독교가 어느 정도 토착화되었으며 본래의 서구 기독교의 형태로부터 변형되었는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서구의 기독교도 각각 토착화된 하나의 독자적인 기독교로서, 마땅히 그래야할 기독교의 어떤 모습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독교도 기독교의 하나의 독자성을 지닌 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을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물질문화가 중심이었다. 기독교에 관한 물질문화로서는 교회건축, 성경이나 찬송가(찬미가),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구류, 성직자나 신도의 의복이나 장신구, 신앙생활에 사용되는 용품, 교

会学校で使用されたり配布されたりするものなどであろう。これらのモノの展示によって、韓国のキリスト教の独自性を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あろうか。ハングルで表記された聖書などの出版物、ヨーロッパのゴチック様式で建てられた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建築、夜になると赤や白のネオンがともる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十字架、民族衣装を着用したマリヤ像などからは韓国のキリスト教の独自の姿を見てとれ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韓国のキリスト教の独自性が目に見えないところにあることも確かである。その独自性は、歴史的に形成されてきたものであり、また他の宗教文化との交渉の中で育まれてきたものでもある。礼拝のスタイル、説教や祈祷の内容、霊的運動、教会と信者や信者間の人間関係、霊的信仰を強調する特別集会、病気治しをおこなう祈祷院などの施設、さらには神学や信仰そのものなどがそれにあたるであろう。このような展示できないものの展示に関しては、今回の新展示にあわせて補助的に電子ガイドが導入されたが、その内容に関してはより一層の充実が望まれる。

博物館展示が物質文化を中心に構成される以上、キリスト教のような目新しくない宗教文化を展示するのは難しい。その独自性が必ずしもモノによって示されるのでは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今回の新展示でキリスト教が韓国社会で重要な位置を示していることをこの日本で観覧者に示すことの意味は決して小さくない。現代の韓国社会を理解するために重要であるからである。

*ここでキリスト教というのは、韓国で改新教といわれる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と天主教であるカトリシズムを合わせて使用している。

회나 교회학교에서 사용되거나 배부되는 것들일 것이다. 이러한 물건을 전시해서 한국 기독교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글로 쓰여진 성서 등의 출판물, 유럽의 고딕형식으로 세워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건축, 밤이 되면 붉은색이나 흰색 네온이 반짝이는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십자가, 민족의상을 착용한 마리아상 등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독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독자성이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독자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며 또한 다른 종교문화와의 교섭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예배형식, 설교나 기도내용, 영적운동, 교회와 신자, 신자간의 인간관계, 영적신앙을 강조하는 특별집회, 병을 치료하는 기도원 등의 시설, 나아가서는 신학이나 신앙 그 자체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전시할 수 없는 것들의 전시에 대하여서는, 이번 새전시에 맞추어 전자 가이드가 보조적으로 도입되긴 하였으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한층 더 충실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박물관 전시가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상, 기독교와 같은 어떤 색다른 것이 없는 종교문화를 전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 독자성이 반드시 물건에 의해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새전시에서,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일본에서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기독교라는 말을 한국에서 개신(改新)교라고도 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천주교인 카톨리시즘을 합해서 사용했다.